

프랑스의 말리 군사개입 현황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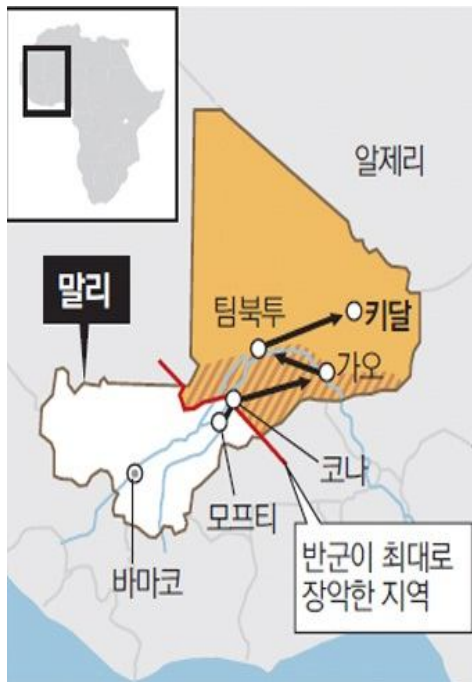
작성자 : 전혜린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2월 26일

■ 프랑스군(4,000여명) · 차드군(1,000여명) · 말리정부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지난 1월 30일 반군의 최후 거점도시인 키달(Kidal)을 탈환함에 따라 말리 내전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

- 연합군의 공습이 이슬람 · 투아레그족 반군을 무력화시키기 보다는 이들을 사막과 산악지대로 몰아내는데 그침에 따라 말리 내전은 향후 게릴라전(테러 · 인질납치 포함)의 양상을 띠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함.
- 사헬지역¹⁾이 아프리카의 아프가니스탄이란 의미에서 ‘사헬리스탄(Sahelistan)’이란 신조어 등장

그림 1. 말리정부군의 진격 경로



자료: 동아일보(2013.1.31)

표 1. 말리 내전 주요 일지

일시	주요 내용
2012.1.17	북부 투아레그족, 분리 · 독립 선언
3.21	말리 정부군에 의한 군사 쿠데타 발생
12.20	안보리, 유엔다국적군(AFISMA) 파병 결정 (결의안 제 2085호 통과)
2013.1.10	- 말리 과도정부 대통령, 국가비상사태 선포 - 프랑스군에 군사지원 요청
1.11	프랑스, 파병 및 공습 감행
1.16	- 프랑스, 지상군 병력 추가 투입 - 알제리 가스전에서 유혈 인질극 발생
1.30	반군의 최후 거점도시인 키달 탈환
2.1	올랑드 프랑스 대통령, 말리 방문
2.9-10	바마코 · 가오 등지에서 산발적 반격 발발
2월 하순	유엔평화유지군 파병 · 배치(예정)
3-4월	프랑스군의 점진적 철군(예정)

자료: 필자 작성

■ 1월 11일, 프랑스는 △ 아프리카 지역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 저지²⁾ △

- 1) 사하라사막 남쪽 가장자리 지역을 뜻하며, 세네갈 북부·모리타니 남부·말리 중부·니제르 남부·차드 중남부 등을 포함
- 2) 사헬지역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틈을 타 ‘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(AQMI)’와 ‘서아프리카 단결과 지하드 운동(NOJWA)’ 등의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이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.

**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지역의 안보 확립 △ 말리 내 자국민(6,000명) 보호
△ 말리의 정치적 안정 회복 등을 명분으로 말리 내전에 독자적으로 개입함.**

- 프랑스의 말리 내전 파병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개입의 이면에는 △ 미개발 광물자원에 대한 이권 확보 △ 역내 영향력 유지·강화 △ 올랑드 정권의 낮은 지지도 만회 등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비난
 - 말리의 주요 광물자원: 금(생산량 기준 아프리카 3위), 우라늄(탐사 중, 추정매장량 5,000톤 이상), 보크사이트(추정매장량 120만 톤), 다이아몬드(미개발) 등

■ 말리 과도정부와 북부 투아레그족³⁾이 선거 준비(2013년 하반기 실시 예정)와 국가 재건 방향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,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여부가 말리의 정치적 안정 확립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
- 프랑스가 3월부터 점진적 철군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반군 활동이 단기간에 진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바,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.

〈자료: Oxford Analytica, Global Research, Reuters, 국내주요언론 등〉

3) 2012년 1월 분리·독립을 선언한 아자와드해방국민운동(MNLA)이 투아레그족측 협상대표임.